

##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

황 순 택<sup>1)†</sup>      조 혜 선<sup>1)</sup>      박 미 정<sup>1)</sup>      이 주 영<sup>2)</sup>

<sup>1)</sup>충북대학교 심리학과

<sup>2)</sup>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전 생애에 걸쳐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Cloninger(1987, 2004)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의 가정에 입각해 볼 때 기질은 성격장애의 유력한 기저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의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기질 및 성격검사(TCI)의 각 차원들과 성격장애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개별 성격장애와 관련된 기질 차원과 성격장애 수준을 탐지할 수 있는 성격특질 차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생 총 753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TCI와 성격장애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과 민감성은 모든 성격장애 군집과 부적 상관을 가져 성격장애의 수준을 탐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질 차원과 의 관련성에서 군집 A는 위험회피 및 사회적 민감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군집 B는 자극추구, 군집 C는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었다. 개별 성격장애와 세 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간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삼차원 그림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질 및 성격차원을 통해 차원적 접근에서 성격장애를 이해하고 개별 성격장애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격장애, 기질, 성격, 성격특질, TCI

---

† 교신저자: 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대학교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043-261-2187, Fax: 043-269-2188, E-mail: hstpsy@chungbuk.ac.kr

성격(personality)이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기질과 학습이나 문화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성격특질이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특성을 말한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성격이 부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야기할 때 성격장애로 분류한다. 성격장애는 기술적인 유사성에 따라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된다. 군집 A는 과상하고 영똥한 성격특성으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가 해당된다. 군집 B는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성격특성으로, 반사회성, 경계선,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이에 해당된다. 군집 C는 불안해보이고 두려워하는 성격특성으로,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해당된다. 이러한 군집은 다른 정신장애와 연관되는 성격적 부적응의 차원적인 스펙트럼으로서 볼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는 기존의 범주적 모델에 덧붙여 차원적 모델로서 정신장애를 이해하고자 했다. 비록 Section II의 성격장애는 아직까지 범주적 모델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DSM-5의 연구자들은 Section III를 제시하여 성격장애를 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차원적 모델에서는 여러 정신병리를 하나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병리로 이해하고자 하며, 개별 성격들의 특질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격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Hopwood, Wright, Krueger, Schade, Markon, & Morey, 2013).

성격에 관한 이론과 설명은 다양하지만 성격심리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격특질로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하였다. 특히, 특질 이론에서는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성격특질의 종류와 그 특징을 밝혀왔다. 초기의 특질 이론가인 Allport와 Odbert(1936)는 요인분석을 통해

성격을 기술하는 어휘들을 요약하여 성격특질을 추출해냈으며, Eysenck(1967)는 관찰된 행동구조를 기초로 하여 외향성과 신경증 차원으로 성격특질을 구분하였다. 성격 5요인 모델에서는 다양한 성격변인 측정치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신경증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다섯 개 차원으로 성격특질을 구분했다(Costa & McCrae, 1992; Digman, 1990; Goldberg, 1981; Norman, 1967).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최적의 성격특질을 찾아내는데 사용한 주된 방법은 요인분석이다. 그러나 성격특질을 찾기 위해 사용된 요인분석 연구는 관찰된 다양한 행동을 요약해주는 소수의 성격 차원을 밝히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들 차원의 발달적 유래 또는 기저의 원인적 구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즉, 이 방식으로는 기질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에 대하여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기초를 가진 성격특질을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Cloninger(1987)는 성격 차원들이 가지는 기저의 구조를 밝히고자 Gray(1982)의 행동 활성화 체계 및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이론과 Sjöbring(1973)의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 BMS)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심리생물학적 성격모델을 개발하였다. Cloninger는 성격(personality)을 기질(temperament)과 성격특질(character)의 두 가지 구조로 구분하였다. 이 중 기질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반면 성격특질은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며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행동 활성화 및 억제, 유지 체계에 기초하여 기질을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Cloninger(1987)는 기질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삼차원 성격 질문지(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PQ)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TPQ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차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적응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격장애를 변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Cloninger & Svrakic, 2000). 이후 TPQ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질뿐만 아니라 성격특질 차원까지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 Przybeck, Svrakic 와 Wetzel(1993)는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개발하였다. TCI에는 네 가지 기질(temperament) 차원과 세 가지 성격특질(character) 차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TCI의 기질 차원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성격특질 차원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 포함된다.

기질 차원인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탐구 활동과 같은 행동 활성화와 관련되는 차원이다.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는 위험하거나 혐오적인 자극을 접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동 억제 및 중지와 관련되는 차원이다.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은 사회적 보상신호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회적 애착,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 예민한 감수성, 사회적인 행동 등과 관련 있다. 인내력(Persistence, P)은 TPQ에는 없었지만 TCI에서 새로 추가된 차원으로, 보상을 행동을 꾸준히 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보상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라는 점에서 RD와 차이가 있다.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Self-Directedness, SD)은 목표와 가치에 따라 상황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개인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적응시키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 연대감(Cooperativeness, C)은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수용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는 측면과 관련된 차원이다.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ST)은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만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된 차원이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Cloninger et al., 1993; Svrakic,

Draganic, Hill, Bayon, Przybeck & Cloninger, 2002).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 일생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유성진, 권석만, 2008; Cloninger, 2004). 인내력을 제외한 세 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기질 유형은 DSM에서 분류한 개별 성격장애들과 그 행동양상이 비교적 정확하게 연결된다. Cloninger(2004)는 세 가지 기질 차원의 조합을 통해 각 성격장애의 개별적인 특성을 발견하여 다른 성격장애들과의 변별이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성격특질 차원은 모든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변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민병배 등, 2007; Jylhä, Ketokivi, Mantere, Melartin, Suominen, Vuorilehto & Isometsä, 2013).

성격장애로 진단된 환자와 성격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로 진단된 정신과 환자, 일반인의 TCI 유형을 비교한 Svrakic, Whitehead, Przybeck 및 Cloninger(1993)의 연구에서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군집 A는 사회적 민감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군집 B는 자극추구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군집 C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과 연대감은 성격장애의 모든 군집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Svrakic 등(2002)의 연구에서는 성격장애의 모든 군집과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 및 연대감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기질 차원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군집 A는 자극추구와는 정적 상관을, 사회적 민감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군집 B와 C는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와 상관이 있었는데, 군집 B는 자극추구와, 군집 C는 위험회피와 더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과 관련되는 성격적 강점을 검토한 유성진과 권석만(2009)의 연구에

서는 성격적 부적응과 상관이 높은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였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성격적 성숙과 적응을 돕는 요인이었다. 또한, 성격장애 군집 A는 자극추구와 정적 상관, 사회적 민감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군집 B는 자극추구와, 군집 C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손애리와 황순택(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손애리와 황순택(2011)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성격병리가 연속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두 시기의 성격병리가 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각 성격장애가 어떤 기질 및 성격특질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격장애 군집 A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 사회적 민감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군집 B는 자극추구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군집 C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 자극추구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까지 성격병리가 연속성이 있으며 두 시기간에 성격병리의 질적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는 자료이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몇몇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성격장애 군집 A는 TCI에서 측정되는 사회적 민감성과 부적 상관이 있고, 군집 B는 자극추구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군집 C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또한,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과 연대감은 모든 성격장애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일관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TCI의 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은 각 성격장애 변인들간의 변별을 가능하게 하며,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과 연대감은 성격장애의 수준을 탐지하는데 유용함을 시사한다.

성격장애를 차원적 측면에서 볼 때 기질과 성격특질이 성격장애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국내에서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의 관련성에 관한 경

험적 연구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실제 성격장애 진단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성격장애마다 고유한 기질 및 성격특질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향후 성격장애를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CI에서 측정되는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과 DSM-5의 10개 성격장애 및 3개 군집간의 관계를 통해 성격장애의 수준과 개별 성격장애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7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 중 남자는 348명으로 46.2%였고, 여자는 405명으로 53.8%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1.37(SD=2.43)세였다. 모든 연구 참가자들은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RS)와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측정도구

####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진 독일판 기질 및 성격검사(TCI-R)의 단축형인 TCI-RS(Goth, Cloninger & Schmeck, 2003)를 민병배 등(2007)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성인용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S, TCI-RS)를 사용하여 기질과 성격특질을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5점 척도(0=그렇지 않다, 1=별로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척

도는 네 개의 기질(temperament) 차원과 세 개의 성격특질(character)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질 차원 척도로는 자극추구(NS), 위험회피(HA), 사회적 민감성(RD), 인내력(P)이 있고, 성격특질 차원 척도로는 자율성(SD), 연대감(C), 자기초월(ST)이 있다. 이 검사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민병배 등, 2007)에서 대학생 집단의 경우 7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90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 7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였다.

### 성격장애 진단검사

개별 성격장애의 정도(level)를 측정하기 위해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개발된 성격장애 진단 준거목록을 토대로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검사(The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하위척도 점수를 개별 성격장애의 정도로 간주하였다. 이 검사는 총 11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SM-IV-TR의 분류에 따라 총 10 개의 성격장애 특징들을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개 척도의 문항 구성은 편집성(PN) 척도 14문항, 분열성(SZ) 척도 11문항, 분열형(ST) 척도 12문항, 반사회성(AS) 척도 19문항, 경계선(BL) 척도 15문항, 연극성(HT) 척도 14문항, 자기에성(NC) 척도 13문항, 회피성(AV) 척도 11문항, 의존성(DP) 척도 15문항, 강박성(OC) 척도 13문항 등이다. DSM-5 section II의 성격장애는 DSM-IV-TR 측 2 성격장애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의 범위는 .53~.75였다. 본 연구에서 10개 성격장애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였다. 이 검사에서 성격장애의 범주적 진단을 위한 별도의 절단점(cutoff scores)은 제공하지 않는다.

### 결 과

####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 차원 간 관계

DSM-5(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3)에서 분류한 성격장애 군집과 기질 및 성격 차원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 결과 기질 차원인 자극추구와 위험회피는 성격장애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군집별로 살펴보면, 군집 A는 위험회피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r=.52, p<.01$ ), 사회적 민감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r=-.37, p<.01$ ). 군집 B는 자극추구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63, p<.01$ ), 군집 C는 위험회피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77, p<.01$ ). 또한, 모든 성격장애 군집은 공통적으로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 및 연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군집 A는 자율성( $r=-.47, p<.01$ ) 및 연대감( $r=-.41, p<.01$ )과 비슷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군집 B는 자율성( $r=-.16, p<.01$ )보다는 연대감( $r=-.28, p<.01$ )과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군집 C는 연대감( $r=-.20, p<.01$ )보다 자율성( $r=-.60, p<.01$ )과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개별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질 차원인 자극추구는 군집 B에 속해있는 반사회성, 경계선, 연극성, 자기에성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7~.61, p<.01$ ). 이들 장애 중 연극성과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민감성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46, p<.01$ ;  $r=.25, p<.01$ ). 위험회피는 군집 C에 해당하는 세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2~.81, p<.01$ ). 또, 군집 A의 세 성격장애도 위험회피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r=.30~.51, p<.01$ ), 이 중 분열형 성격장애는 위험회피( $r=.30, p<.01$ )뿐만 아니라 자극추구( $r=.36, p<.01$ )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연극성, 자기에성, 의존성 성격장애를

표 1.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 간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

| 성격장애<br>진단검사 | 기질 및 성격 차원 |       |         |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NS (20) | HA (21) | RD (20) | P (20) | SD (20) | C (22) | ST (17) |
| 총집           | 322.89     | 27.59 | .35**   | .54**   | -.10**  | -.01   | -.51**  | -.40** | .24**   |
| 군집 A         | 76.57      | 11.40 | .18**   | .52**   | -.37**  | -.13** | -.47**  | -.41** | .25**   |
| PN (14)      | 31.37      | 4.60  | .11**   | .51**   | -.31**  | -.01   | -.39**  | -.43** | .13**   |
| SZ (11)      | 19.75      | 4.25  | -.09*   | .47**   | -.54**  | -.26** | -.36**  | -.42** | -.07*   |
| ST (12)      | 25.46      | 5.30  | .36**   | .30**   | -.09*   | -.06   | -.38**  | -.17** | .49**   |
| 군집 B         | 149.51     | 15.39 | .63**   | .04     | .16**   | .25**  | -.16**  | -.28** | .28**   |
| AS (19)      | 40.36      | 5.82  | .61**   | -.05    | -.07    | .11**  | -.08*   | -.41** | .15**   |
| BL (15)      | 35.06      | 5.52  | .52**   | .27**   | -.03    | .08*   | -.39**  | -.32** | .20**   |
| HT (14)      | 37.77      | 4.38  | .37**   | -.10**  | .46**   | .28**  | .03     | .04    | .25**   |
| NC (13)      | 36.32      | 4.28  | .38**   | -.02    | .25**   | .38**  | .02     | -.07*  | .29**   |
| 군집 C         | 96.80      | 10.72 | -.18**  | .77**   | -.11**  | -.25** | -.60**  | -.20** | -.05    |
| AV (11)      | 25.48      | 4.47  | -.19**  | .81**   | -.32**  | -.40** | -.60**  | -.35** | -.17**  |
| DP (15)      | 37.03      | 5.10  | -.04    | .65**   | .13**   | -.40** | -.68**  | -.12** | -.03    |
| OC (13)      | 34.29      | 3.99  | -.22**  | .32**   | -.10**  | .30**  | -.07    | .00    | .09*    |
| 평균           |            |       | 37.65   | 39.95   | 46.57   | 44.95  | 43.78   | 54.47  | 28.78   |
| 표준편차         |            |       | 10.32   | 12.62   | 9.90    | 9.79   | 10.91   | 9.32   | 11.42   |

\*  $p < .05$ , \*\*  $p < .01$ .

주. PN=편집성 성격장애, SZ=분열성 성격장애, ST=분열형 성격장애, AS=반사회성 성격장애, BL=경계선 성격장애, HT=연극성 성격장애, NC=자기애성 성격장애, AV=회피성 성격장애, DP=의존성 성격장애, OC=강박성 성격장애, NS=자극추구, HA=위협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인내력P, SD=자율성, C=연대감, ST=자기초월.

주. 괄호 속은 척도의 문항수 임.

제외한 다른 성격장애들은 사회적 민감성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03 \sim -.54$ ). 인내력은 군집 A의 모든 성격장애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 $r = -.01 \sim -.26$ ), 군집 C에서는 강박성을 제외하고 회피성과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40$ ,  $p < .01$ ). 반면, 군집 B의 모든 성격장애와 인내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08 \sim .38$ ). 이들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격특질 차원과 개별 성격장애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군집 A의 모든 성격장애(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는 자율성 및 연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17 \sim -.43$ ,  $p < .01$ ). 이에 비해 군집 B에 해당하는 장애들 중 반사회성과 경계선 성격장애는 자율성 및 연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r = -.08 \sim -.39$ ), 연극성 성격장애는 자율성( $r = .03$ ) 및 연대감( $r = .04$ )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율성과는 정적 상관( $r = .02$ ), 연대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r = -.07$ ). 군집 C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만 연대감과 정적 상관이었으며, 의존성 및 회피성 성격장애는 자율성 및 연대감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 $r=-.12\sim-.68$ ). 자기초월 차원은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분열성( $r=-.07$ ), 회피성( $r=-.17$ ), 의존성 성격장애( $r=-.03$ )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들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기질 차원으로 성격장애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세 가지 기질 차원의 조합에 따른 개별 성격장애의 위치를 변인들 간 상관의 크기를 좌표값으로 하여 삼차원으로 나타내었다(그림 1). 인내력을 포함한 4개의 기질 차원 중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성 있는 상관이 보고되지 않은 인내력 차원은 삼차원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10개 성격장애 각각과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세 기질 간 상관을 살펴보면, 표 1과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반사회성 성격장애(AS)는 자극추구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경계선 성격장애(BL)는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연극성 성격장애(HT)는 사회적 민감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위험회피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에성 성격장애(NC)는 자극추구 및 사회적 민감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회피성 성격장애(AV)는 위험회피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사회적 민감성 및 자극추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의존성 성격장애(DP)는 위험회피 및 사회적 민감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강박성 성격장애(OC)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자극추구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민감성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격장애에 대한 성격특질 차원의 중다회귀분석

성격장애를 예언할 수 있는 성격특질 차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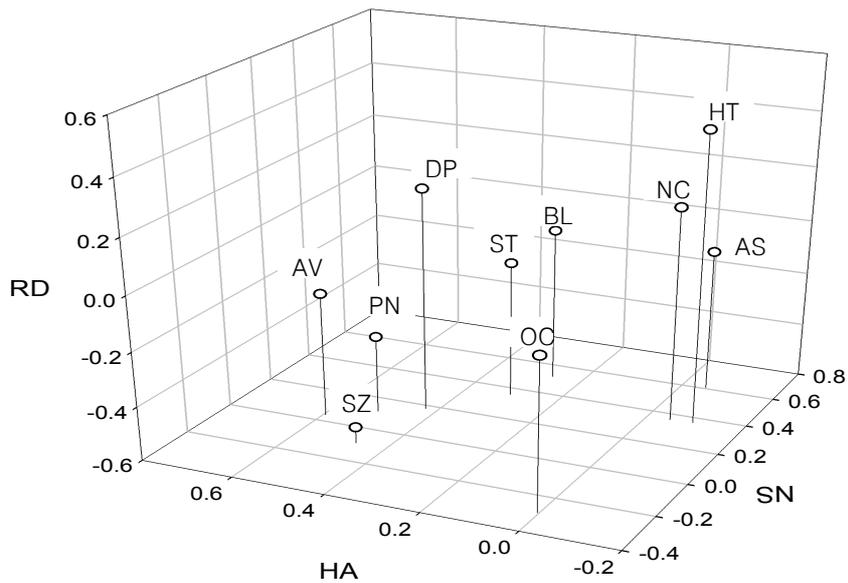


그림 1. 성격장애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간 상관

주. PN=편집성 성격장애, SZ=분열성 성격장애, ST=분열형 성격장애, AS=반사회성 성격장애, BL=경계선 성격장애, HT=연극성 성격장애, NC=자기에성 성격장애, AV=회피성 성격장애, DP=의존성 성격장애, OC=강박성 성격장애,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표 2. 성격장애에 대한 성격특질 차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성격장애 (총점) |                |                 |           |      |           |
|-----------|----------------|-----------------|-----------|------|-----------|
|           | R <sup>2</sup> | ΔR <sup>2</sup> | F         | β    | t         |
|           | .46            | .46             | 213.76*** |      |           |
| 자율성       |                |                 |           | -.45 | -16.21*** |
| 연대감       |                |                 |           | -.37 | -12.90*** |
| 자기초월      |                |                 |           | .36  | 12.90***  |
| 성격장애 군집 A |                |                 |           |      |           |
|           | R <sup>2</sup> | ΔR <sup>2</sup> | F         | β    | t         |
|           | .44            | .44             | 194.55*** |      |           |
| 자율성       |                |                 |           | -.40 | -14.15*** |
| 연대감       |                |                 |           | -.38 | -13.38*** |
| 자기초월      |                |                 |           | .37  | 13.14***  |
| 성격장애 군집 B |                |                 |           |      |           |
|           | R <sup>2</sup> | ΔR <sup>2</sup> | F         | β    | t         |
|           | .21            | .20             | 64.64***  |      |           |
| 자율성       |                |                 |           | -.10 | -3.02**   |
| 연대감       |                |                 |           | -.33 | -9.56***  |
| 자기초월      |                |                 |           | .36  | 10.70***  |
| 성격장애 군집 C |                |                 |           |      |           |
|           | R <sup>2</sup> | ΔR <sup>2</sup> | F         | β    | t         |
|           | .36            | .36             | 140.90*** |      |           |
| 자율성       |                |                 |           | -.60 | -19.37*** |
| 연대감       |                |                 |           | -.06 | -1.84     |
| 자기초월      |                |                 |           | .01  | .28       |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격장애의 총점은 성격병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성격장애 총점에서 세 가지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은 성격장애를 46% 예언하였으며, 특히, 자율성의 예언량이 가장 컸다( $\beta = -.45$ ,  $p < .001$ ). 군집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 성격차원은 군집 A는 44%, 군집 B는 20%를 예언하였으며, 군집 C는 오직 자율성만이

36%를 예언하였다. 즉, 성격장애 수준을 탐지하는 성격특질로 가장 유용한 것은 자율성이었다.

### 논 의

기질은 선천적, 생물학적으로 타고나 생애 전반에 걸쳐 성격을 형성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기질은 성격장애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다(유성진, 권석만, 2008; Cloninger, 2004).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 (1987)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기질 및 성격검사를 이용하여 기질 및 성격 차원이 성격장애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탐색하였다. 특히, 성격장애 군집 및 개별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 차원 간의 관계 그리고 성격장애에 대한 각 성격특질 차원의 설명력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특질 차원 중 자율성과 연대감 차원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초월 차원이 낮을수록 전체 성격장애에 대한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성과 연대감 차원이 높을수록 성격장애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질을 적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율성과 연대감 차원이 성격장애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TCI 성격특질 차원들은 DSM-5의 성격장애를 가지는 개인의 공통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었으며, 이 점에서 이러한 개인들을 선별하거나 진단하는데 유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장애와 TCI 성격특질 차원들 간의 관계를 연구한 몇몇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성격장애가 자율성 및 연대감 차원과의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나 자기 초월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Griego, Stewart, & Coolidge, 1999; Simone, Duijsens, & Cloninger, 1998; Svarakic, 1993; Svarakic et al.,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집 C를 제외한 성격장애들에서 자기초월 차원이 성격장애의 수준을 탐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자기초월 차원과 성격장애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군집 C가 다른 성격장애 군집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TCI의 기질 차원과 성격장애 간 관련성을 본 결과 성격장애 군집 A는 다른 군집에 비해 사회

적 민감성 차원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군집 B는 자극추구 차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군집 C는 위험회피 차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기질 차원은 DSM(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2000, 2013)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격장애의 특징을 서술하는데 적합하다. 예컨대, 군집 A 성격장애는 대인관계가 빈곤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낮은 사회보상 차원과 연관성이 있다. 군집 B는 불안정한 정동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높은 자극추구 차원으로 설명된다. 군집 C는 긴장과 불안수준이 높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조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위험회피 차원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Simone et al., 1998; Svarakic, 1993; Svarakic et al., 2002)에서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던 10개의 개별 성격장애 수준에서 고유한 기질 및 성격특질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개별 성격장애들에서는 자극추구 기질이 가장 높은 성격장애는 반사회성과 경계선 성격장애였다. 위험회피 기질에서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가 가장 높았다. 두 성격장애 모두 위험회피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인내력 차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성격장애는 연극성 성격장애였다. 이에 비해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성격장애는 분열성 성격장애였다. 인내력 기질 차원은 자기에성과 강박성 성격장애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두 성격장애 모두 보상행동을 유지하려는 행동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손애리와 황순택(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손애리와 황순택(2011)의 연구에서 자극추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장애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이고, 위험회피는 회피성 및 의존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민감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던 것은 연극성 성격장애였다. 인내력 차원은 강박성 성격장애에서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최근 Defife 등(20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성격병리 간에 연속성이 있고, 이러한 연속성에 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성인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각 성격장애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다양한 연령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기질이 지속적으로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Cloninger(1987, 2004)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성격특질 차원들이 성격장애를 예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예언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세 성격차원으로 성격장애를 46% 예언하였으며, 그 중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성격장애의 수준이 강할수록 자기개념(self-concept)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은 현재의 결과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과 자신에게 존재하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 없이 현실감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적이고 미성숙한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성격장애 군집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다른 군집에 비해 군집 A가 자율성 및 연대감 차원과 더 큰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군집 A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성, 예컨대 허약한 자아 기능, 현실적인 사고의 어려움, 사회적 공감의 부족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TCI에서 측정되는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들은 DSM의 개별 성격장애 및 성격장애 군집들의 발달적 기원을 설명해주는 자료로 유용하며, 이러한 자료는

또한 성격장애의 변별 진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원적 모델을 수용한 DSM-5(APA, 2013)의 관점을 받아들여 기존의 범주적으로 분류된 성격장애를 TCI의 7가지 기질 및 성격특질 차원을 통해 차원적 접근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적 접근을 통해 성격장애 수준의 탐지 및 성격장애 변인들 간 변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 각 성격장애와 관련된 기질 차원은 개별 성격장애 범주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과 연대감은 성격장애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는 바 향후 성격장애 치료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보다 폭넓은 영역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배경정보(예: 연령, 학력, 직업, 지역 등)가 다양한 사람들 또는 성격장애 수준이 심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가 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성격장애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성격장애의 발달적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통해 기질 차원의 성격장애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기여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주) 마음사랑.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73-288.
- 손애리, 황순택 (2011). 청소년기 성격장애 개념의 구인타당도: 성격장애들간 및 성격장애

- 와 기질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93-309.
-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 유성진, 권석만 (2009).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 기질-성격 모형의 임상적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563-586.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1-17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rth Edition*. Washington DC: APA.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rth Edition,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PA.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5*. bookpointUS.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6), 573-588.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Svrakic, D. M. (2000). Personality disorders.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edited by Sadock & Sadock, 1723-64. New York: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5-990.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
- Defife, J. A., Haggerty, G., Smith, S. W., Betancourt, L., Ahmed, Z., & Ditzkowsky, K. (2014). Clinical Validity of Prototype Personality Disorder Ratings in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ahead-of-print), 1-7.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1), 417-440.
- Eysenck, H. 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Thomas.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41-165.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 *Das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Kurzversion für Erwachsene-TCI R Kurz*. Frankfurt,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und Jugendalters der JW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 Grary, J. A., & McNaughton, N.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iego, J., Stewart, S. E., & Coolidge, F. L., (1999). A convergent validity study of Cloning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with the Coolidge Axis II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3), 256-267.
- Hopwood, C. J., Wright, A. G. C, Krueger, R. F., Schade, N., Markon, K. E., & Morey, L. C. (2013). DSM-5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and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Assessment*, 20(3), 269-285.
- Jylhä, P., Ketokivi, M., Mantere, O., Melartin, T., Suominen, K., Vuorilehto, M., & Isometsä, E. (2013).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European Psychiatry*, 28(8), 483-491.

- Norman, W. T. (1967). On estimating psychological relationships: social desirability and self-report. *Psychological Bulletin*, 67(4), 273.
- Simone M. de la Rie., Duijsens, I. J., & Cloninger, C. R. (1998).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2(4), 362-372.
- Sjöbring, H. (1973). Personality structure and development. A model and its applic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Supplementum*, 244, 1-20.
- Svrakic, D. M., Draganic, S., Hill, K., Bayon,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2002).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etiologic, diagnostic, treatment issu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3), 189-195.
- Svrakic, D. M., Whitehead,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3).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s by the seven-factor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91.
- 1 차원고접수 : 2014. 12. 23.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4. 04.

## Personality disorders relationship with temperament and character

Soontaeg Hwang<sup>1)</sup>

Hyeseon Jo<sup>1)</sup>

Mijung Park<sup>1)</sup>

Jooyoung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Cloninger(1987, 2004) was assumed that naturally inborn temperament affects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time. If based on this assumption, temperament may be a potent cause of personality disord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disorders (PDs) and each dimension in Korean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that based on Cloninger's psychobiological model. Also, we investigate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that have each PDs, and examined the character dimensions that can discriminate PDs. The Korean TCI and Personality Disorder Test were administered to 753 university students. We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self-Direction (SD) and Cooperativeness (C) were useful indicator for recognizing level of PDs, because SD and C were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cluster of PDs. Cluster A was associated with Harm Avoidance (HA) and Reward Dependence (RD). Cluster B was related Novelty Seeking (NS), cluster C was involved HA. Furthermore, we suggested three-dimensional figure ab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10 PDs and three temperament dimension (NA, HA, RD).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trait of PDs through a temperament and character dimension.

*Keywords* : Personality Disorder, Temperament, Personality, Character, TCI